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榮元

社說

頹廢·分裂·放縱
—反動期에 들은 社會相의 一面—

一

戰爭이나 革命과가티 夥多한 精力의 消耗와 極短인 神經의 亢奮한 狀態를 지내는 民衆들은 그 自體의 生物學的 原因에 依하야 平穩과 無事를 渴望하는 休息狀態에 들어가기 쉬은바이다 그것이 勝捷과 成功으로써 一般民衆의 意氣를 旺盛케 하는 動力이 되는 때에는 오히려 積極的의 進取로써 歷史進行上 가장 活潑有爲한 時期를 짓는 것이어니와 戰敗이나 或은 叛徒의 屈服으로써 終結되고 그의 國民的 或은 民衆的 意氣가 銷沈하게 되는 境遇에는 一般으로 頹廢無氣力한 睡眠狀態에 싸지기 쉬운바이오 그의 必要한 副作用으로써 分裂 或은 放縱의 氣風이 助長되는 것이니 이는 東西史上 그 例가 매우 만흔 바이다

二

數個의 國民이 對戰한 結果 一個의 國民이 戰敗한 境遇에 所謂 臥薪嘗膽에 徹天의 遺恨을 갑는다는 意味로써 끌어 그 國民的 意氣를 振作하야 衰頹와 停頓中에 沈淪되엇든 國民으로써 沛然히 復活의 新機軸을 짓는 例도 매우 만커니와 그것이 被征服國民이나 或은 被壓迫民衆으로써 革命的 叛亂을 널으키엇슬 것에 不幸히 民衆의 屈服으로 자못 前途暗澹한 專制主義勝利의 逆境을 現出한 境遇이면 그는 거의 例外가 업시 頹廢, 分裂, 放縱의 社會的 傾向을 促成하고 因하야는 가장 厭忌할 反革命的 傾向을 現出하는 일외가지 도잇는바이다 『나폴레옹』戰役後 獨逸國民勃興의 實例는 吾人이 累累히 例證한 바이오 一八七一年 普佛戰役後 『알사쓰, 로렌』 兩州를 일흔 佛國民이 沈痛한 哀傷한 脚子의 紀念像의 設置와 함께 恒常 그의 勃務한 國民的 敵愾心으로 몰이어 그의 精神的 復活의 時期를 지은 바잇스니 이는 모다 前者의 實例로써도 近代史上 引用할 바 만흐나 吾人이 써로 提言한 一九○七年으로 同一○年까지의 專制主義勝利期의 露國民의 事蹟은 또한 그의 適例라 할것이다

三

吾人이 世界의 反動을 論한지 오래고 朝鮮社會의 沈滯와 停頓을 說한지 累次이다 일즉 滔天의 勢로써 雄大한 國民的 示威運動의 氣勢를 活히엇든 그들이 時局의 逆轉과 壓迫의 加重으로써 자못 日非한 形勢를 悔悔케 되든 오늘날에 어느덧 그 意氣의 銷沈과 및 局面의 停頓을 오게 함은 매우 必然한 理勢이다 그들은 지금 자못 衰頹期에 接入하야 써써로 分裂의 場面을 露出한다 이는 識者의 매우 慨嘆할 現狀이다 그리고 滔滔한 氣分이 漸次 昂騰함이 到處에 表現될 뿐 아니라 軟弱한 淫猥文學의 瀰漫하려 하는 傾向도 또한 最近의 一特色이다 世間의 人士 매양 靑年男女의 風紀를 云爲하고 或은 現下靑年들의 無氣力함을 歎嗟하며 그의 一面으로는 다시 放縱自恣한 常軌에 벗어남을 指斥한다 그리고 昨春以來 暗潮에 遊動하기 비롯한 反民衆的 分子의 時時 跋扈함도 또한 歷史的 必然의 一科目으로 흔 그 成例를 例치고 커하자 아니 함을 볼것이다

四

專制主義의 勝利 民衆의 悲痛

…이다 그러나 吾人은 다만 이로써 呪咀할 悲觀으로만 볼리고말 한 大敗北! 이는 咀呪할 時代의 가? 굳지라도 다시 這間에 沛然히 振作할 確固한 意氣가 잇슬가? 일즉 吾人의 畏敬할 先輩에 依하야 指示된 바와 가티 이 不幸한 反動의 時期는 鬪爭者와 鬪爭的 階級에 對하야 眞實하고 또 有用한 歷史進行的 理法의 敎訓 그의 政治的 鬪爭의 組織에 關한 賢明한 理解와 能力과 熟練과의 敎訓을 蓄積하는 機會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 不幸한 境遇에 依하야 艱難에 處하되 矜益할 이 업는 眞正한 戰友를 了解하고 兼하야 勸誘期에 잇든 精密한 回顧로써 그의 次期의 策戰을 一層 周到한 準備로써 對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야 不祥한 分裂의 現狀은 곳 그 陣營의 再整理 鬪力의 精鍊을 意味하는 過渡的 必然으로 반듯이 悲觀의 理由만 되지 아니할 것이오 遊蕩淫猥 放縱의 厭忌할 現狀은 또한 生新 活潑한 社會的 新氣習을 誕生하는 混濁한 前兆로써 그의 轉換되는 將來를 豫期할 수 잇슬 것이다

五

落後者된 吾人의 悲哀인 苦痛은 매우 만타 吾人은 先進한 諸國民이 累世紀間 各種의 努力과 各樣의 方式으로 各個의 階段을 지내오면서 次第로 到達하든 바를 이제 그들로 因하야 回轉되는 世局을 當하여 자못 要約的 突進을 하여야 할는지 或은 絶對한 修練中에 永久한 失路人이 되어야 할 冷酷한 運命下에 노혀잇다 그리고 吾人은 지금 不利한 時局을 當面하야 從來의 進擊의 戰術에다가 다시 賢明한 退却의 戰術을 採用하여야 하게 되엇다 吾人은 엇더케 進擊할 것과 엇더케 退却할 것을 가장 賢明하게 了得하지 안코서는 드듸어 勝利의 策戰을 말할 수 업슬 것이다 嗚呼 頹廢, 分裂, 放縱! 그는 또한 第二의 엇더한 時期를 오게 하는 齊符를 意味하는 거라

勞農情報局
米國華盛頓에 設立

(華盛頓二十二日發) 本日 華盛頓포스트紙는 露國情報局이 華盛頓에 設立한다고 大題目下에 左記와 如한 記事를 揭載하야 注目을 惹起한다 同局은 公然하게 通商取引에 關한 資料를 提供하나 事實上은 非公式大使館이 되야 莫斯科政府의 探査職務、外交機能을 實行한다고 說破하엿더라

賠償金受渡의 弊害
白耳義國際商議委員長力說

(브랏셀二十一日發) 當地에서 開催하엿든 國際商業會議所大會席上에서 白耳義委員長 『모ㅣ리스트푸레』 氏는 演說하야 日 獨逸賠償支拂金數十億의 巨額의 受渡는 或은 聯合國及獨逸人의 經濟狀態를 破壞할 虞慮가 잇다고 說하고 又 聯合國間의 戰債解決問題에 『또스』案과 同一한 案 決濟案을 適用치 안으면 안된다고 力說하엿더라

布哇、구암 兩重地防備問題와 로提督의 主張內容

(紐育二十日發) 加州南部沿岸 『산취고』에서 온 報道에 依하면 八月 桑港布哇間의 長距離飛行을 擔任할 『로쟈스』 提督은 右의 飛行은 『데우에, 아이란드』를 經由하야 『구암』의 飛行을 決行키로 하엿는데 『로』提督의 主張하는 바에 依하면 布哇, 加州間 二千四百浬의 飛行을 成功한 後에는 布哇의 防備는 爆彈貯藏所 三個所만 先히 此를 改革하야 窮困히 할수가 잇다 卽 一朝有事時에 亞米利加航空隊는 布哇에 飛來하야 其貯藏의 爆彈을 用하야 攻擊하는 敵軍을 海岸을 距한 地百浬의 前에서 爆發할수가 잇다 又 『구암』은 橫濱을 距하기 千五百浬의 距離에 散在하는 故로 『로』提督指揮의 飛行機는 事實上 太平洋을 橫斷하는 것이더라

日英排斥을 協議
奉天省各團代表가

(奉天二十二日發) 奉天省各團體는 二十日夜 當地에 代表會議를 開하고 今後의 取할 方針에 對하야 協議하엿는데 多數의 意見은 示威運動이나 罷業과 가튼 自殺的 直接行動보다 할발이 間接的 持久策을 取함이 可하다는 意見인데 其方法으로는 義捐金을 募集하야 上海의 罷工人을 助하고 文字의 宣傳으로써 日英排斥의 目的을 達하기로 議定한 後 各實行方法을 決定하엿다더라

無產政黨組織에
委員會에서 全國에 飛檄

(東京電) 日本農民組合內 無產政黨組織準備委員會는 二十二日 全國에 一千名以上의 會員을 有한 三十一 勞働團體에 無產政黨組織에 關한 一提議文을 濫送하고 普選實施後에 當然히 起할 無產政黨을 自然에 맥기지 말고 勞働組合이 共同하야 擁立의 第一步를 展開하자 하얏더라

宜昌、漢口 아즉平穩

(東京電) 外務省着電＝宜昌에 잇는 長江上流司令盧金山氏는 同地撤市罷動取締令을 發布하엿슴으로 學生聯合會는 恐怖를 抱하고 排外示威運動을 企하는 者는 無賴漢이라고 稱하야 一般은 平穩하다 漢口는 繼續하야 靜穩하나 日本陸戰隊二十名은 日本人俱樂部에서 特히 夜間警戒에 從事하고 잇다 過日暴動損害實地調査는 進行中에 잇다

香港海員罷業
外國船에 中國海員

(東京電) 香港는 兩三日來 中國學生等이 何等理由가 업시 休校하고 救國團名稱의 下에 日英帝國主義及香港政廳의 一切壓迫에 反抗하라고 煽動하얏는데 十九日午後、廣東、香港澳門間航路의 英船乘組中國人船員一同은 同盟罷業을 하고 海員組合은 廣東海員工業聯合會의 決議에 基하야 一切의 外國船에 잇는 中國人船員은 同盟罷業을 促進할 事를 決議하엿다더라

中田醫師射殺事件
廣東政府에 抗議

(東京電) 廣東에서 博愛病院의 中田醫師의 射殺原因은 强盜의 所爲인 듯도 하나 目下 排外示威運動의 時節임으로 此氣勢를 利用하엿슴은 無疑한 事實인바 廣東領事館에서는 本件을 頗히 重大視한다 日本領事는 卽時 廣東政府에 抗議를 提出한바 遺憾의 意思를 表示하나 本件에 對하야는 中國側으로부터 速히 犯人을 檢擧할 것과 死者에 對하야 慰藉料를 交附하라고 要求할 터이라더라

藥劑師學說試驗

大正十四年 第二回 文部省藥劑師學說試驗은 左記에 依하야 行한다더라

一、期日 大正十四年九月七日부터
二、願書受付 同年七月十日까지
三、試驗場所 朝鮮總督府醫務局
四、提出書類 (가)願書(나)履歷書(다)戶籍謄本(라)中等學校長及藥學校長의 證明書(마)科目合格者는 科目合格證明書(바)手札形寫眞
五、願書提出官廳 總督府醫務局衛生課
六、右外學說受驗資格登錄者는 其登錄番號를 願書에 記載하는 外에 大正三年부터 大正九年六月까지 間에 學說試驗을 受한 年月及受驗地名을 記載하야 願書에 添付할 事

淸安鎭川間 道路工事着手
來七月二日에

忠北線淸安鎭川間道路工事는 來七月二日부터 着手한다는데 橋梁에 對한 工費는 忠北道廳에서 幾許의 補助가 잇슬 것이고 其他道路에 對한 賦役一切은 住民負擔이라는바 槐山區域의 賦役人數는 如左하다더라(淸安)

面別	賦役人數
曾坪面	三千七百十人
淸安面	一千七百人
道安面	一千五百八十六人
沙梨面	七百五十人

光陽에 少年少女音樂及童話
滿場의 盛況

全南光陽郡新少年社支社에서는 去十三日午後九時부터 當地靑年會館에서 懸賞少年少女音樂及童話를 開催하엿다는데 定刻前부터 來到한 群衆은 立錐의 餘地도 업스며 滿場의 盛況을 呈하엿다는데 受賞者는 如左
一等 … 金鍾信 二等 … 金永培
◇音樂 一等 떠나보江 金鍾根 二等 小鳥 金昶伊 三等 獨千鳥 朴炳西 四等 나의故鄕 金五根 … 金自斤(光陽)

光陽에 少年少女 雄辯開催
二十六日에

全南光陽少年團에서는 東亞、時代及本報各新聞支局後援으로 來二十五日에 光陽靑年會館에서 第一回少年少女懸賞雄辯大會를 開催하는바 多數申込하야 주기를 바란다하며 年齡은 滿十三歲以上 十八歲以下 少年少女에 限한다더라(光陽)

苗浦夜學
維持新派興行
同情金이 遝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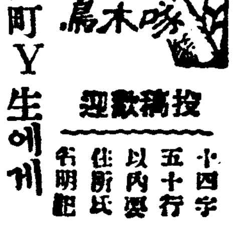
全北苗浦庚申靑年會에서는 夜學部經費가 困難함으로 新派俳優新劇을 復活시켜 去十五日에 興行한바 一般觀衆에게 多大한 印象을 與하는 同時에 同情의 義捐이 爭先遝至하얏는데 金額과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京城金祺中 五十圓 京城金璣中 二十圓 金同俊 裴遇煥 京城旅館主車永淳 金泉旅館 各十圓 仁盛親睦會 無名氏 許奎煥 苗浦商會 金龍均 各五圓 華商裕池春 二圓 宋寅晧 林方玉 金寧錫 張用淳 崔永愛女史 許奕月女史 各一圓(苗浦)

湖南少年庭球大會
群山少年會主催로 來二十七日에

群山少年會에서는 創立以後 少年事業에 大活動中이든바 今般에는 體育을 奬勵키 爲하야 地方人士의 多大한 同情을 어더 湖南少年庭球大會를 左記場所에서 開催하리라는데 多數參加하기를 希望한다하며 規定은 如左하다더라
時日 本月二十七日午後三時
場所 沃溝郡廳코ㅡ트
參加資格 十八歲以下 身長五尺二寸
參加組 三組
參加金 一圓五十錢
申込期日 本月二十五日까지
賞品 優勝旗 라ㅡ켓트 運動服其他(群山)

槐山春蠶收繭豫想
昨年보다 二百石增加

今年度槐山郡內春蠶狀況은 桑葉의 伸長不良으로 多少困難이 有하엿스나 一般的으로 良好하다하며 掃立枚數 三千九百二十枚로 收繭豫想高는 二千石이라는데 昨年에 比하면 掃立二百二十枚、收繭二百石의 增加라하며 今年의 價格도 高騰함으로 飼育者는 매우 깃버한다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要住所氏名明記)

光熙町Y生에게

◇兄님! 나는 光熙町一隅에서 아즉까지 몸을 숨어잇는 一個의 無名兄임니다 兄님도 光熙町사람으로 아니 活動하시는 志士인것을 나는 잘작으로 잘고잇슴니다 ◇兄님! 나亦 光熙町사람임으로 兄님의 뜻을한 文句中 『光熙町女子夜學은 아는이는 알고 모르는이는 모른다』고한 말을 나는 同志와 한가지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勿論 우리洞里사람은 모다 알고잇스리라고 나는 自信합니다 ◇兄님! 世上이 아모리 冷靜하기로 누의와 딸을 爲하야! 새로운 曙光이 비초인 朝鮮의 一千萬女性을 爲하야! 보람잇는 世上을 創造한다는데야! 무엇을 앗기겟슴니가? 그러나 兄님도 아시겟지만! 우리 光熙町이라고 하는 洞里는 朝鮮의 有數한 貧村임니다 먹을것이 업고 입을것이 업는 사람들이 大多數가 居住하는 一大部落임니다 더욱이 四五年以來로는 무서운 經濟의 變動으로 因하야 ㅣ살다가ㅣ살다가 못하야ㅣ光熙門外城壁下ㅣ新堂里附近으로 쫏겨난 사람이 百으로 배數를 計할만치 되엇슴니다 ◇귀여운 딸이나 아들이라도 사랑스럽지 안흔것은 아니로되ㅣ普通學科도 가르치지 못하고ㅣ綿工場ㅣ或은 고무工場으로 보내여 生活의 途를 찾게 하는 것이ㅣ그들의 理想은 아닐것임니다 敎育도 바들수가 업는 사람은 … 습니다 典當局倉庫에는 物品이 滿積하엿고 길에 지내가는 어린아이 얼굴에는 주린빗이 나타남니다 兄님! 이것이 누구의 罪일가요 ◇兄님 光熙町사람들이 女子夜學設立된데 對하야 傍觀하는 狀態에 잇는것이 無理라고는 할수가 업슴니다 同ㅣ夜學을 發展케 하자면 多數人士의 푸로의 誠意보다도 몃몃 少數의 自覺이 잇서야 되리라고 생각함니다 ◇나는 반가운 消息을 드릿슴니다 同夜學의 自宅을 洪魚吉氏가 協議中이라는바ㅣ몃몃 志士를 網羅하야ㅣ不遠 開夜學은 더욱 完全하게 될 希望이 잇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좋흔 事實이기를 힘써 바라며ㅣ아울러 여러 先生님에게 感謝를 드리나이다(G生)

陰城에 衛生展覽

忠北陰城警察署에서는 來二十七、八兩日에 本署構內에서 衛生展覽會를 開催하고 衛生에 對한 活動寫眞도 映寫할 豫定이라는데 無料入場으로 多數觀覽하기를 希望한다더라(陰城)

馬山崇武館
十八日에 落成式

慶南馬山에서는 靑年의 體育을 發展하며 精神을 修養할 機關이 업슴을 이에 遺憾이든바 李敬煥、黃溶燮外數氏의 熱誠으로 오래동안 活動한 結果 一般有志의 援助를 어더 當地靑年會館南側에 崇武館을 建築하야 이미 竣工되엿슴으로 去十八日午後三時에 同館內에서 落成式을 擧行하얏는데 黃溶燮氏의 開會辭와 金溶煥氏의 同情金報告와 權浩龍氏의 建築經過報告가 잇슨後 李承漢、金容煥兩氏의 來賓祝辭가 잇섯나자 師範山下夏目兩氏에 對한 紀念品贈呈式이 終了되고 이어서 會員의 實地練習이 잇슨後 同午後五時에 閉會하고 餘興으로는 豫定한 音樂演奏會는 雨天의 關係로 다음 期會로 밀우고 一般來賓과 茶園에서 簡單한 談話會가 잇섯다더라(馬山)

義城幼稚園
巡廻歌劇來安
雨中에 盛況

慶北義城幼稚園에서는 巡廻歌劇團을 組織하야 各附近地方을 巡廻한다는데 去十八日에는 安東에서 當地靑年會와 東亞、本報兩支局其他數個團體의 後援으로 同日午後八時부터 當地慶安學院內에서 歌劇會를 開催하엿는데 雨中임을 不顧하고 蝟集한 觀衆은 立錐의 餘地도 업시 滿場의 大盛況을 呈하얏스며 多額의 同情金도 잇섯다더라(安東)

統營少年蹴球

在京統營學友會의 準備 在京統營學友會主催로 來八月上旬에 統營에서 統營郡少年蹴球大會를 開催할 豫定으로 在京統營學友會에서는 諸般設備에 紛忙中이라더라

勞働會創設
榮州林谷에서

慶北榮州郡浮石面林谷里에서는 去十五日에 同里李漢昭氏外有志의 發起로 勞働會가 設立되얏는바 李漢昭氏의 司會로 會則通過及一般議事를 進行하얏는데 當日有志로부터 二百餘圓의 義捐이 잇섯스며 選擧된 任員은 左와 如하더라 會長 李德忠 副會長 李炳朝 總務 朴弘九 會計及庶務部長 李漢昭 記錄 張元相(榮州)

夏季講座開催
巨濟에서

巨濟靑年聯盟에서는 今夏季를 利用하야 講座를 開催한다는바 希望者는 速히 申請하기를 바란다하며 그에 對한 規定는 如左하다더라
一、時日 八月三日부터 約二週間
一、處所 巨濟靑年會館
一、講師 社會學其他
一、聽講料 金五圓
一、聽講員의 資格 普通學校卒業程度 有志者
一、申請期 七月二十日까지로 하되 聽講料는 申請과 同時에 納入할 것(巨濟)

金醫師의 講話
猩紅熱猖獗로

密陽三浪津에서 猩紅熱이 蔓延됨에 密陽公立普通學校에서는 一般生徒에게 注意를 주기 爲하야 去二十日午前八時半에 密陽三省醫院院長醫學士 金炯達氏를 請聘하야 一千二百餘名의 生徒를 모아노코 猩紅熱에 對한 病의 原因症狀豫防의 方法及治療方法의 講話가 잇섯다더라(密陽)

密陽에 아기舞踏歌劇
一般은 苦待

密陽幼稚園은 開園되지 不過數月에 保母金在顯女史의 熱心保育으로 成績이 매우 良好한바 特別히 其成績을 學父兄諸氏와 一般人士로 하야금 觀覽케 하고저 來廿五六兩日間 下午八時부터 舞蹈歌劇大會를 開催할 터이라는데 勿論 密陽有史以來 처음되는 일이며 特히 天眞한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의 춤추고 노래하는 것임으로 觀覽할만한 價値가 잇슬 터이라고 一般人士側에서도 손을 곱아 苦待中이라더라(密陽)

三浪津에 猩紅熱猖獗
普通學校休學

密陽郡三浪津에는 猩紅熱이 發生하야 날로 蔓延됨으로 同地에 在한 普通學校에서는 萬一을 念慮하야 休學을 行하얏스며 三浪津으로부터 密陽公立普通學校에 通學하는 學生에게는 猩紅熱이 終熄될 써까지 限하야 停學을 시켯다더라(密陽)

安東靑年委員會

慶北安東靑年會에서는 지난 二十日午後四時 該會館內에서 執行委員會를 開하고 對靑總加盟에 對한 件과 其他各項을 討議한 後 靑總에 加盟은 滿場一致로 可決되고 同七時에 無事閉會하엿다더라
◇討議事項
一、前會計事務引繼에 關한 件
二、桑園問題에 關한 件
三、靑總加盟에 關한 件
四、市民運動殘務에 關한 件
五、勞働夜學에 關한 件
六、全安東木板庭球大會에 關한 件
七、會館修理에 關한 件
八、講演討論素人劇開催의 件
其他事項(安東)

身北에 橋梁架設

聞慶郡身北面은 邑에서 相距가 三里假量이나 되는바 그 中途에 河川…

盟罷講演
雄辯大會로
在滿大震靑年主催

北滿洲寧古塔에 在留하는 靑年同胞로 組織된 大震靑年會에서는 來六月二十五日午後六時부터 同會의 主催로 當地第一栗氏小學校內에서 北滿少年雄辯大會를 開催하리라는데 出演할 少年은 北滿에 在留하는 少年同胞로 各小學校에서 二人式 登壇하리라하며 同雄辯大會가 終了한 後에는 當地名士某氏의 講演도 잇스리라는데 演題는 아래와 갓다더라
一、白熱化하여가는 全中國罷業과 東洋革命의 關係
一、現代靑年運動

洪原救濟會
靈武에 特派募金
同情이 多大

咸南靈武市에는 去十九日에 洪原饑饉救濟會로부터 救濟金을 募集하기 爲하야 派遣한 委員四氏가 來靈하얏는바 左와 如한 同情金이 蒐集되엇다더라 申彦進 金五圓 愼興吉 金四圓 朴東根 金三圓 恒盛德 同盛昌支店 陳炯澈 申鉉道 木元發 崔谷 各金二圓 李春燮 權學龍 崔訓 朴文鎔 金承昌 洪性勳 崔學兒 各金一圓 合計 二十九圓(靈武)

洪原救濟會募金
同情人士多數

咸南洪原郡好賢面饑饉救濟會에 追後로 遝至한 同情金額及人士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李相龍 趙鳳鎭 各二十圓 韓俊鎭 十五圓 孟相鄕 龍源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陳中澈 各十圓 龍源面事務所職員一同 六圓 金周洛 金麟烈 申彦進 金允奎 各五圓 愼興吉 四圓 金炳善 金炳甲 朴東根 各三圓 李相鎬 高仁杓 高炳益 陳炯澈 恒盛德 同盛昌支店 申鉉道 木元發 崔谷 二圓 愼鳳 吳仁三 李春燮 金光鍊 朴南鍾 金胄鎬 金熙喆 高鈺 權學龍 李學昇 朴文鎔 洪性勳 金永昌 各一圓 崔錫根 十五圓 高明極 十圓 高明淳 三圓 金容根 李英健 孫永功 金是燦 李宅洙 各二圓 溪源里 源上里 中興里 百里 虎興里 龍澤里 隱澤里 安豐里 安興里 平上里 桃源里 直洞里 豐東里 累計 六百二十圓(洪原)

雙岩幼稚園
設立初에 好績

咸南利原郡東面雙岩靑年會에서는 當地幼兒를 爲하야 去五月下旬에 幼稚園을 創設하엿다는데 이미 入園兒童이 二十餘名에 達하야 當地에는 新氣分을 불수 잇다하며 先生諸氏도 界에 無報酬라는데 其氏名은 如左하다더라 園長 龐亨朝、先生 金始煥、梁學鳳、林成根(利原)

城津靑年會
新旗幟로 復活
一般企待深大

城津靑年會에서는 昨年夏期講演會가 當局으로부터 解散을 當하게 된 以後 會員集會가 零星함을 따라 衰滅의 感이 업지 못한 狀態에 잇슴으로 今般 高利央 金泰亨君等의 斡旋으로 靑年運動의 復活에 共鳴하는 新進靑年들을 併合하야 去十八日下午八時半에 城津旭町元商業學校講堂에서 城津靑年會 復活總會를 開催한바 二十餘名外로 女性들의 參加도 잇서 大盛況裡에 會衆은 李以石君의 開會辭로 靑年運動의 方向及立場에 對한 說明이 잇슨後 會則改正、委員選擧、오는 端午의 市民大運動會 開催할 것과 端午前으로 全郡靑年會聯合會를 召集하자는 等 事項의 決議가 잇섯스며 … 金待와 注意를 가진다 더라
◇委員 張永銷 李熙澤 金若泉 金泰亨 高利英 康弘俊 李恩淳 金河根 金炳灼 李雲來(城津)

利原農家의 憂慮
稻苗의 蟲害太甚으로

咸南利原郡에서는 今年에 稻苗가 不足하야 一般農家에서 憂慮가 甚하다는바 播種時에 充分한 播種을 하엿스나 蟲害로 因하야 三分一以上의 被害를 當한 外 달이라는데 昨年早災의 餘苦가 아즉도 남은 附近農民은 이것이 또 한 今年의 凶作이나 될 前兆가 아닌가하고 매우 傷心中이라더라(利原)

華川靑年討論

華川靑年會에서는 去十三日午後九時에 當地普通學校에서 討論會를 開催하고 會長吳友三氏 司會로 討論을 始作하얏는데 文藝部長 李澤俊氏 審判下에 演士의 滋味스러운 討論이 잇슨後 同午後十二時에 閉會하엿는바 演士와 演題는 如左하더라
◇演題 事業成就에는 勇氣냐 智慧냐
◇勇氣(可便) 張昌浩 金永麟 金演模
◇智慧(否便) 張好福 權寧植 沈雲澤

學生商會復興
蔚珍同志會計劃

去十五日에 蔚珍同志會에서는 任員會를 開催하고 同會의 發起한 學生商會를 復興식히고자 하야 各面의 委員을 選定하고 株金募集에 着手하기로 決定하엿다더라(蔚珍)

洪原救濟會募金
益益好績

咸南洪原饑饉救濟會에 追後로 同情한 人士의 氏名及金額은 左와 如하다더라 崔炳稙 貳拾圓 中山正三 熙周 平田文太郞 李鍾奎 各二圓 張奕斗 郭聞鑛 秦應善 各一圓 裴升源 崔中瀅 各五十錢 累計 千三百九十九圓七十錢(洪原)

靑年商業家의 篤志

咸北明川郡上古面雨下洞鄭寅七氏는 三十未滿의 靑年商業家로 自己個人事業도 不顧하고 洞民의 發展을 爲하야 直接間接으로 만흔 貢獻이 잇슴으로 當地一般住民의 信望이 만흔바 今般昨年凶作과 金錢不通으로 飢死에 瀕하게 된 貧民三十餘戶를 爲하야 每戶에 小米三斗式 分給하야 爲先生命을 救濟하는 同時에 將來에도 生活安定을 엇게 하기 爲하야 職業을 紹介하기에 매우 忙殺하는바 自己의 債權도 貧民에게는 半額或은 三分之二로써 減額하여 주엇슴으로 一般의 稱頌이 藉藉하다더라(三湖)

咸興公普校生來洪

咸南咸興公立普通學校 五、六學年以上及高等科一二學年生徒 五百餘名과 學父兄四十名은 去十七日午前九時二十六分前津驛着列車로 校長河井軍次郞外訓導五氏의 引率下에 來洪하야 洪原의 名勝地인 穿島、松島公園、西北山公園 其他여러곳을 求覽하고 午後五時七分前津驛發列車로 無事히 歸咸하얏다더라(洪原)

喝采裡에 熱球!
宣川個人庭球會
優勝은 金禮鉉組

旣報ㅡ宣川基督靑年會의 主催 東亞、朝鮮、宣川兩支局의 後援인 宣川個人庭球大會는 豫定대로 去二十日午後一時에 明信學校코ㅡ트에서 梁桂勳氏의 司會下에 開會되엿다 元來期待하든 大會의 첫막을 열게 되엿다 全朝鮮庭球界를 압하야 有名한 宣川이라 申込組數가 十七組이라는 多數에 達하엿고 相對各組의 莫上莫下 妙技는 數千觀衆의 마음을 긴장케 하여 空前의 盛況裡에 優勝組에 賞品授與式이 잇슨後에 同午後五時五十分頃에 閉會하엿는바 最後의 優勝은 金禮鉉、金熙泰君의 組에 歸하얏는데 其成績은 如左하다더라
◇第一回戰 ×(負)○(勝)
×前井手 二村 ○橋元正 任守吉
◇第二回戰
○金錫福 朴英燦 ×朴英秀 李允成
×李文基 魯允輝 ○吉景春 李春錫
×金鎭國 李德亨 ○朴文亨 魯炳益
○白雲吉 趙淸嬉 ×朴世米 李益輝
×魯麒豊 魏鴻彬 ○朴基福 金成幹
×任守宗 橋元正 ○金得興 金一善
×杉崎 金鉉杓 ○金禮鉉 金熙泰
◇第三回戰 …
◇第四回戰 …
○金得興 金一善 ×朴文亨 魯炳益
○金禮鉉 金熙泰 ×白雲吉 趙淸嬉
◇決勝戰
○金禮鉉 金熙泰 ×金得興 金一善(宣川)

纛島堤防期成
當局에 交涉
委員을 選定

高陽郡纛島에서는 去五日에 面民大會를 開催하고 纛島面民全體의 死活問題인 同時에 纛島의 發展與否에 莫大한 關係가 잇슬 뿐 아니라 同面民이 一向 恐怖를 感하는 洪水被害를 防止하지 안흐면 안되겟다하야 堤防期成會를 創立하엿다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去十日에도 此에 對한 實行方針을 具體的으로 決定코저 同日午後九時부터 任員及評議員等 約五十名의 役員이 同面事務所에 會集하야 役員會를 開催하얏는데 李丙儀氏의 司會로 經濟問題를 爲始하야 關係官廳에 交涉할 委員까지 選擧하고 同十一時에 閉會하얏는데 委員은 如左하다더라 張台峰 金成俊 盧敬元 林虎 纛山 松田 崔燦淳 金永濟 李敬完 李圓來(高陽)

龍川楊市
公會堂期成會와
우리奇術團美擧

龍川郡楊市에는 公共會集할 場所가 업슴으로 一般이 遺憾으로 여겨오던바 數日前에 當地有志人士의 發起로 公會堂建築期成會를 組織하고 이에 對한 計策을 講究하던 次에 去十六日에 『우리奇術團』一行이 當地에 來到한 것을 機會로 하야 興行中 一日은 前記期成會와 東亞分局의 主催와 本報支局後援下에서 興行하야 實費를 除한 所得金 四十二圓을 寄附하엿는데 『우리奇術團』團長 朴昌順氏에 對하야 稱頌이 藉藉하다더라(楊市)

◎中和楊井橋及公普落成 來六月二十四日(陰五月四日)正午十二時부터 本郡楊井面楊井橋에서 架橋落成式과 同午後一時부터 公立普通學校에서 校舍新築落成式을 擧行한다고(中和)

◇正誤 過般安州私立校聯合競技大會에서 優勝한 維新校에는 不正選手가 잇다하야 엇던 學校로부터 一時 말성이 되엿스나 事實인즉 全然 風說에 不過한 것이라고(安州)

仁川在米續減

(仁川)仁川穀物協會調査에 依한 本月二十日現在의 市內五銀行倉庫在庫米는 前週에 比하면 合格米는 九千三十三叺、無檢査米는 二千三百七十四叺 減을 退하엿는대 在庫品을 細別하면 左記와 如하더라

玄米	四斗入	八八、四九○叺
	五斗入	一五、一二六叺
白米	三斗入	三五二叺
	四斗入	二、一一九叺
	五斗入	八○叺
正租	叺入	四八叺
	俵入	七、六五四俵
大豆	四斗入	四七、三一九叺
小豆	五斗入	四○叺
	七斗入	五三八俵
大麥	五斗入	三七叺
小麥	四斗入	六、三三四叺
粉米	四斗入	二、○八四叺
粟	七斗入	八九五袋
蕎麥	叺入	三五三叺
糯米	四斗入	一、三○六叺
外國米	百八十斤入	八二五袋
同	七斗入	一○○袋

烏山第八回討論

水原郡城湖面烏山耶蘇敎會主催 第八回定期討論會를 來二十六日午後九時부터 烏山耶蘇敎會에서 開催한다는데 演題와 演士는 左와 如하다하며 多數來參을 바란다더라
演題 春種秋收의 種時가 貴乎 收時가 貴乎
演士 種時便 金在鍊 韓利貴 收時便 鄭蓮心 金變西(烏山)

敎育講究會創立

京畿道水原郡城湖面內에 잇는 三興義塾 大成學院 華城學院 光成學院의 敎員一同이 敎育의 硏究와 親睦을 圖키 爲하야 去二十一日午前九時부터 烏山大成學院에서 敎育講究會를 組織하고 會則制定 任員選定 其他事項을 決議하고 今年夏季休暇를 利用하야 敎育宣傳으로 京畿道內를 巡廻하기로 決定한後 午後四時에 閉會하엿다는데 任員氏名은 如左하다더라 委員代表 柳冀欽 委員 金忠烈 孔錫政 沈相茂 … 文藝部長 裴國鉉(烏山)

松都에 吸血鬼劇
松高學生靑年會主催로 盛況을 이루어

開城松都高等普通學校內에 在한 學生靑年會에서는 去二十日下午八時半부터 市內中央會館에서 素人劇大會를 同會任員朴鳳在君의 開幕趣旨說明으로 開幕되엇는데 一般觀客은 開幕하기 前에 滿場의 盛況을 이루엇스며 上場한 藝題는 現社會의 殘忍刻薄한 事實을 模型한 吸血鬼란 戲曲으로 滿場人士에게 無限한 感興을 惹起케 하엿스며 其外에 喜劇、洋樂等 數種의 順序로 下午十二時頃에 閉幕되엇는데 今般收入된 金額은 同靑年會 圖書購入費에 補充한다더라(開城)

◇寸鐵◇

◇【慶州】 慶州郵便所長某는 某報에 非難의 記事가 잇슨後 當地靑年會員에게는 自己집에 『물』도 걸리오지 못하게 한다고 朝鮮人과는 絶緣을 해보겟다는 心思인가 아조 絶緣을 하라거든 모다 너의 故鄕으로 가거라

◇【鐵山】 金融組合理事烈某는 某郡婦와 失體를 하야 行巡警官에게 發覺되엇다고 組合帳簿外에 檢査할것이 아업겟지

◇【白川】 有志로 自處하는 丁某 吳某、廉某는 三人合同으로 石山面의 引水道를 막고 돈을 벌나가 百餘農民이 郡廳에 殺到하는 바람에 그만 뒤중수를 첫다고 그러케 財産欲이 膨脹하엿거든 無人空家를 엿보앗스면 조앗슬걸

◇【宣川】 宣川公立普通學校日本人訓導某某는 女子部宿直室에서 朝鮮人娼妓及倭갈보를 불러다노코 질탕치듯 노든데 그들에게 敎壇을 맛기엿다고 普通學校內에 遊廓出張所를 設置한 심인가

◇【大邱】 大邱에서는 所謂 協道振興會의 八回總會를 去二十日에 開하엿는데 該會를 利用하야 同民會支部를 設置하라고 知事退物申某는 活動中이란다 儒敎도 『홍치』敎로 變化?

後場小落
仁川期米 第二報
期米 廿二日

前場 阪地四十一圓十三錢止와 共히 三十八圓三十六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後場에 入하야 阪地初付 四十一圓十一錢인 四丁反落을 據하고 三十八圓三十六錢인 三丁低價로 場을 始한 後 阪地三節 四十一圓 … 九十九錢으로 更히 九十錢外지 續落하야 二十二錢外지 低落하엿다가 阪止 九十一錢인 一丁小戾와 相俟하야 二十八錢으로 跳返하엿더니 止際에는 買氣旺盛하야 結局 三十四錢에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는 十四丁이며 阪仁의 鞘는 二百五十七丁으로 縮少하엿더라

大阪場況
二十二日後場

今後場 阪地場況은 地場及京都筋 又는 朝鮮筋의 賣로 四十一圓十一錢에 場을 始한 後 前場의 買方과 利喰物이 急出하엿스나 『마바라』筋의 投物이 現出하야 ○三錢으로 低落할새 投物이 益益出하야 九十九錢으로 止場 買도 不關하고 九十錢까지 操落하더니 結局 九十一錢으로 大引하엿다고

◇各地止價◇

二十二日後止　昨止比

大阪	四○、九一	三八低
東京	四一、八九	五○低
兵庫	四○、五九	四七低
下關	四○、七九	四六低
桑名後	四○、六一	四八低
名古屋	四○、七八	三一低
金澤	四○、八九	三低
熊本	四一、二○	三四低
仁川	三八、三四	二四低

◇阪仁氣配◇

大阪	二、三錢低
仁川	三十八圓三十一、二

◇各限俵合◇

二十二日後 [illegible]

三洞里農民 三十餘名을亂打

橫暴無道한光州專賣局員

벌금대신에태형을집행하다고

전남화순(全南和順)군내인도암(道岩)면청풍(淸豊)도림(道林)송석(松石)한천(寒泉)등 오개면(面)의 산골속에서사는 백성약천여호(千餘戶)의 인구륙칠천(六七千)명은 유일한 직업인연초(煙草)경작을 본업으로 삼아 복감자(馬鈴薯)로 근근히 연명을하는가운데 여름에 홍도가튼 몸에는 풀닙과나무껍질로 혹은 불빗을 쏘여가면서 피땀흘린 결과 가을과겨울은 담배를파라 겨우호구를하든중이라는데 연초전매령(煙草專賣令)이발표된이래 길들일은 남부녀대(男負女戴)하야 산설고물선『서비리아』나 혹은만주(滿洲)간도(間島)또는일본(日本)등디로 류리표박(流離漂泊)하는사람이 해마다늘러서 실도 그수효가 수백명에달하는 데 지난팔일오전에 전매국광주(光州)출장소원김용배(金容培)림유주(林裕周)외문(文)모 김(金)모와 하인두명이 송석면묵곡리(默谷里)에와서 자가용(自家用)허가가잇는사람의 담배모판을파버리고그외허가가업는사람의모판사십여(四十餘)개소를 전멸하는동시에동리 리명선(李明先)외이십여명에게대하야 매를함부로따린후 그이웃동리 장치리(莊峙里)로가서역시

담배밧을 파버리는동시에

정귀도(鄭貴道)외 십일명을 일시로 묵어안치고는 이매가백원(百圓)자리다 혹은륙십원(六十圓)자리라하며 란타하고또한천(寒泉)면고시리(古侍里)에이르러 전귀와가튼 행동으로구장(區長)외일명을 무수히 란타하야 현장에혼도되엿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대기로구타하야 인사불성이된것을 동리사람들이 자긔집으로 업어갓다는바그곳인민들은 그자들의 횡포무도한행동에 분개하야 방금인심이흉흉하다더라

恰似憲兵討伐時代

이놈죽일놈살릴놈하면서 보리타작하듯이마때라어

전매국광주(光州)출장소원들이 수십명동민을 란타하엿다함은별항과갓거니와 이에대하야 송석면묵곡리(默谷里)구장의말을 들으면『우리동리는 금번에란리를당하얏습니다 흡사히 십여년(十餘年)전의 헌병토벌시대(憲兵討伐時代)와 가탓슴니다 그 커 오륙인이작대기 혹은팡이를 들고와서 담배밧을 전부파버리고 그종자(種子)부친 사람들을 자바다가 일제히묵어안치고는 무슨죄인 문초밧는것과가티 이놈죽일놈 살릴놈하면서 너희들은벌금대신으로태형(笞刑)을집행한다하고그커보리타작(打麥)하듯이하엿슴니다 이래서야 어대산중불상한 백성들이 살수잇슴닛가! 산중사람들은 담배농사가데일 큰생명 인데생명을 빼기고는 살수업슴니다 우리동리호수(戶數)오십여호에인구삼백여명이 아마이로인하야 금년에호수반수이상은 류리할 상태에잇슴니다』하며다음으로장치리(莊峙里)구장은말하되『우리동리말입닛가! 말할것도 업슴니다만은묵곡리보다도 더심하엿슴니다그래도 살려고가을에 담배를파라서갑겟다하고 남에게 로돈이나취해다가종자를팔아서 풀리과 석거서 겨우연명을하는가운데 담배농사나 할가하고 담배모를부엇는데 전매국량반들이와서 씨가업시 전멸을하고 불상한그들을 그러케몹시

蘇鎭亨氏出獄

신병이위독하야

독립주비단사건(獨立籌備團事件)으로사형선고를밧고원산(元山)형무소에서복역중이든소진형(蘇鎭亨)씨는래이십팔일이 만긔인데 신병이 위중하야지난십구일에 집행뎡지로 출옥되야원산구세병원(救世病院)에 입원치료중인바병세가위독하다더라

罷養慰藉料! 못밧고殺人

이전양가집 고문의모친을죽여

지나간십팔일에 대구디방법원다뎐(多田)재판장의 심리하에개정된사건은경북문경군 마성면정리(聞慶郡麻城面井里) 안덕진(安德鎭)(□)과밋례천군룡궁면월오리(醴泉郡龍宮面月梧里)사는김도준두사람이 공모한피고세명에대한사건으로개뎡된바인바립회한삼포(森浦)검사로부터 안덕진는사형을구형하고김도준은 무죄를론고하엿는데 그내용을드르면 전귀안덕진은어려서례천군 룡궁면월오리에잇는친외안시진(安時鎭)의집으로 양자를갓는바 그집행중과 농도주하얏든바그 후에양가에서도 파양을당하고 멋이오즉 궁분한요로 오뎐월을청하야 리연위자료로 오백원을 청구하엿더니 이에응하지아니함으로 분히녀저 음력정월칠일오전일시경에 전귀 김도준으로망을보게하고 안시진의 고문으로잇는동리홍의인(洪儀仁)의천실에드러가서 조선낫으로 취침중에 잇는 홍의인의모친윤매산(尹梅山)외머리를찍어참사하게하고 또홍의인을중상케한 사실인바 전귀 김도준은 공모의혐의가업다하며언도는오는이십오일에 하리라더라(대구)

貧窮한朝鮮女子 日人주먹에落胎

模糊한井邑警察署

분개하야미칠듯한피해자 경찰에고소한즉우물주물

전북정읍군정읍면시긔리(井邑面市基里)에서는조선녀자한명이 일본인남자에게 매를맛고락태(落胎)하야 설분하여주기를 동군경찰서에 고발하엿더니 경관과공의가 그락태된 원인을까지 진단하고그락태된 원인을그녀자에게 몰려 보냄으로 그녀자는 할수업시 그죽은아이를령에무더바리고 도라와 병석에서 신음하는중이라는데 그내용을 드르면그녀자최삼월(崔三月)(□)는 그남편진성조(陳成祚)(□)와함의 품팔어 호구를하는터임으로그 이웃집 일인고곡병장(古谷兵藏)이란자의 과수원(果樹園)에가서 지대(紙袋)로평과싸기와 지대만드는 품군이되엿던 바음력지난사월십구일에주인고곡이가 지대를 잘못만든다고주먹으로 그녀자의등을 몃번이나 친결과 그러케마진후엿새되든날 곳음력사월이십오일정오에만칠삭된태아가떠러짐으로그남편과 그녀자의들이 경찰서에 고발한결과공의와경관이 일인공의(宮池今造)라는사람을다리고와서 그떠러진아이를 진찰하고그시체까지가지고가서는아모회답이업슴으로 최씨가

의심이 나서

그공의에게 가서태아를달라한즉이에 커녀로미루고 잘 내여주지아니함으로 경찰서에가서말한즉경관의말이 그것을차저다가 무엇을 하라느냐 공의의말을 듯드래도 자긔에게그러한락태하는병이잇다한즉그만두는것이 조치아니하냐고 설유하나 최씨는 분을 이기지못하야 다시공의에게로와서 당신이 만약그죽은내자식을 내여주지아니하면 내가 고소를일려이니 이제곳 내여달라한즉그제야내여주는데 권보다피는다싸지고가죽모양만 남앗섯는바 그것을가지고 도라오는길에 또그 따린자고목이를보고

분한말

을하매 그자의말이 네가술을 만히먹고 평과를차려 발판을 뒷다가 그발판에서떠러저서 락태한것을 날다려따려서그리햇다고 하느냐고 괴고만장하야 네가어데를가던지 내게는아모 관계가업다함으로 그락태한녀자는 어이가업시 도라와 서그남편을식혀그태아를무더바리고 엇더케하여야 나의원통을 풀가하며 자긔의처디가 빈약한 것을 원망하는중인데 이말을들은 당디 조선인인사들은 분개함을마지아니하야 장차 큰문데가 생길듯하다더라(정읍)

家庭不和로

횃대에목을맨녀자

경북김천군 석현면작내리(慶北金泉郡石峴面作乃里)서청삼(徐淸三)의처 박로작(朴魯爵)(一八)은지난구일 오후일곱시경에 자긔집방안에서 횃대에 목을매여 자살하엿다는데 그자살한 원인은자세히 알수업스나 본래부터 가정불화로 항상자긔 남편과뜻이 맛지안어 불평을품고 잇든중그날은 마침사소한 언쟁이잇슨후 그와가티 자살을 단행한것이라더라(김천)

非行宣敎師聲討

뎡명녀학교에서폭행한 선교사비판연설을연다

목포에서 방축하며만행

목포뎡명녀학교맹휴(木浦貞明女學校盟休) 사건으로해결의서광이 망연하다함은 루보와갓거니와 그동안사회여론이 비등하야 날마다 모혀 토의하엿스나구데덕묘안을 엇지못하고 다만비행교사리용준을 방축하며만행(蠻行)선교사맹현리(孟顯理)를 상당히 사회뎍으로 처리하자하엿든바 문데의 주인공리용준교사가 동교에서 나오게됨을따라 사건은 일단락을 고한듯하며선교사만행폭언에대하야는목포칠개단테에서분긔하야금월이십일오후팔시반에 목포 청년회관에서 비행선교사비판연설대회(非行宣敎師批判演說大會)를 개최하얏다는데 칠개단데는아래와갓더라(목포)

木浦靑年會、社會團、基督靑年會、木浦女子團、學生團、無産青年會、務木青年聯盟

大同會長金溪山 中國官憲에게被逮

부하를간도로파견한사건이 발각되어서파견원이지잡혀

일즉히중국돈화현(中國敦化縣)에근거를두고 독립운동에 힘쓰든 대동회회장 (大同會會長) 김계산(金溪山)은 지나간팔일에당디중국관헌에게 데포되엿다는데 그는 일즉 연길도윤공서(延吉道尹公署)로압송되엿다는데 지나간중순경에 동회희원인 리범영(李範英)황모(黃某)량인이 동회의중대한임무를띄고 간도(間島)디방으로 나오다가 용정삼자(龍井村)에서 불행히중국관헌에게 데포되어 즉시연길경찰청(延吉警察廳)으로압송되엿는바 그들은권긔 김계산이가 파견한사실이판명되어 그와가티 김계산이가데포된것이라더라(간도)

沐浴하다溺死

인도교상류에서

시내약초뎡(若草町)이십팔번디 과자상(菓子商)윤락영(尹樂榮)집에 고인으로잇는배순만(裵順萬)(二二)는 이십일일오후세시경에한강데이인도교(第二人道橋)상류 삼뎡가량되는 디뎜에서목욕을 하다가그만 빠저죽엇슴으로 시테를방금 수색중이라는데 날이몹시더워 이십일일 벌서 인도교부근에서 땜수목욕을하는사람이 수백여명에 달하엿다는바 이로부터 한강에목욕하다가는 곳빠지기 쉬운때임으로 일반은주의하여야되겟더라

避하려다負傷

자뎐거타고

시내현뎌동(峴底洞)백사번디의칠십륙호에 사는전매국 창고부 김윤삼(金允三)은 이십일일오후두시경에 자뎐거를타고서린동(瑞麟洞)구십칠번디압 개천가를 지내든중 엽골목으로부터 나오는 부인한

大阪에도 이십이일

오전열두시에

대판(大阪)은이십이일오전영시(零時)이분쯤 사람에게감각될만한 디진이잇섯는데 시간은십륙분간이며 진원디는 서북(西北)백삼십륙킬로메돌 디뎜이라더라(경도뎐보)

蘇生後에辯明

병으로자살코자한것 다른원인은업다

경북영주군 영주면 영주리구번디(慶北榮州郡榮州面榮州里)사는김종익(金鍾益)은양잿물을먹고자살코자 하엿다함은 본보에 긔보한바어니와 이제그후보를 드건대 수월전부터 난치(難治)의병이 발생하야 고통하든중 일시오해(誤解)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는생각으로음독한것이오 채무에졸려 다른사람에게 신용이 타락되야경영사가 랑패되거나 또는사긔한사실이잇서서 그런것은 아니라고 소생한당자는 말하더라 (영주)

大邱健康診斷

접객업자에게

대구서에서는 오는 이십사일부터삼십일까지 칠일간에 시내에잇는 려관 요리집 음식뎜 대좌업(貸座業)예기의집 리발업 수육판매업자 우유영업 어름집등 사람과접촉이 만흔사람에게건강진단을할터인바 시간은 매일오후한시부터 동네사시까지라 하며일할과구역은아래와갓다더라

▲二十四日 本町一丁目 元町一二丁目 東千代田町 西千代田町 上町 前町 西城町 一二丁目 上西町 下西町等은警察署로 ▲廿五日 壽町 大和町 京町 一二丁目 北內町 西內町 七癸町 弓町 南町 本町二丁目 三笠町 南北龍岡町(同上) ▲廿六日 東雲町 村上町 東本町 錦町一丁目 幸町 田町 東城町一二丁目 榮町 南北旭町 東門町等은大邱劇場으로 ▲廿七日 村上町 料理屋營業藝妓 (村上町券番으로) ▲廿九日 大鳳町 鳳山町 東城町三丁目 南城町 德山町 明治町一二丁目 南山町 (桐華寺로) ▲三十日 市場町 横町 笠町 新町 市場北通 錦町二丁目 達城町 八雲町 八重垣町等은(驪成院으로)

聲討計劃

楊平金組理事를

조합원전부의 총회를열고서

경긔도 양평군디방 금융조합리사 근등장관(楊平郡地方金融組合理事近藤長官)은 당디에부임한지수년인데 그동안에 동조합원과 직원에게는 물론이고소위역원(役員)에게 대하야도 의례히『기미』가 아니면『오마에』다는 말버릇으로써 그ㅣ만한례도가 업슬뿐아니라 불친절한행실은 이로다말하기 어려운바 동조합원들은 림시총회를불원간 개최하고 그자의 오만무례한 행동과 기타만흔실책(失責)과 죄악을들어 성토를 하는동시에 감독관텽인 경긔도당국에 진정할 계획이라더라(양평)

自殺未遂

光明會幹事

윤화수를 구금하고취됴중

이십일 오후두시에 광명회(光明會)간사 정사민(鄭士敏)은자긔집에서 아편을먹고 자살을계획하엿는데 발견되여 목뎍을 이루지못하엿다 내용은 영신학교(永信學校)이관문데(移管問題)에대하야 천경영자의도장을위조(僞造)하야이를윤화수(尹和洙)에게준일이 발각되여 사회에대한면목이업슴을 자각한것이라는데 이사건이잇슨이후로일본경찰서는 윤화수를 구금하는동시에 가택수색을 하야엄중히 됴사중인바 매우중대하야의외의방면에확대(擴大)될는지도모른다더라(간도지국특뎐)

『셰브란스』병원에입원하엿다는바 일개월이상의 입원치료를바더야할모양이라더라

◇우는경성태양단

◇아래는평양고보군

少婦飮毒自殺

박정한남편

죽어도조타고말해

론산군 론산면욱뎡(論山郡論山面旭町)삼성옥 양복뎜(三省屋洋服店)의 직공으로 잇는박순명(朴淳明)의 안해리씨(李氏)(一九)는지난 십이일 오후여섯시경에자긔집에서쥐잡는약을 먹고죽엇다는데 그원인을 탐문한바에의하면 리씨(李氏)는남의집무남독녀(無男獨女)로 일즉이부친을 여히고홀로된 어머니안씨(安氏)슬하에서귀엽게자라나이로부터 삼년전가을에 박순명과결혼하야 이래사려오던바 모녀의 애처로운정은 항상떨리떠러커 잇슬수업서 몃번이나자긔 남편에게 자긔어머니를 모시겟다고간청하엿스나또한박순명의 형편임으로 어머니를 보고십허하는마음은 날이갈사록 간절하나

사정도 이를들을수 업는

승을 태우고잇든중 생활도뜻과갓지못하고 남편의사랑조차 점점맹정하야 구박이심함으로 이를비관한후 미리부터준비하여두엇던 쥐약을먹고 고민하는것을이웃사람이 발견하고 즉시그남편에게통지하엿스되박순명은 도로혀 분을내며 죽을테면죽으라고 그대로버려둔것을 약먹은지팔구시간후에야 비로소엇던 사람이 그곳충남의원(忠南醫院)의사 차현섭(車顯燮)씨를다려다 응급치료를 하엿스나그녀자는 이미죽기로 결심한바에 다시살면 무엇하느냐고하며 치료할약을도모지먹지안코다만자긔어머니에게보내는유서(遺書)한장을 남기고한만흔 이세상을 그만 떠나버렷다는데 림종시까지도이웃녀자 사오인이와서 수종하엿슬뿐이오 그남편 박순명은근처에잇스면서도와서보지아니하엿다고일반의 비난이 자자하다더라(강경)

명과 마조치어 위태하게되자부인을 피하려다가 잘못하야개천에떠러지며 돌에부듸처 외인편억개가 중상한외에 전신여러곳에 타박상을당하엿슴으로 즉시

但馬地方又地震

자든사람이모다뛰어나왓다

일본단마디방(但馬地方)에는지난십오일에 강한디진(地震)이 잇섯고 이십이일 새벽에는 두회에나누어 장시간 디진이잇섯는데 이로인하야 성긔(城崎)풍강(豊岡)방면에는자든사람이 전부문밧그로 뛰여나왓는바 데일회의것은 오전두시 사분삽십구초에 이러나 최대진폭(最大震幅)『삼미리』칠이오시간은 일분반이엇스며데이회의것은오전세시이십일분십삽초에이러나 진폭은『일미리』이오시간은일분간이엿는데 진원디(震源地)는 성긔로부터일본해(日本海)방면삼십『킬로』이라더라

屠夫組合臨時總會

조합원다수가모혀서 세가지를결의

시내와룡동(臥龍洞)형평사중앙본부(衡平社中央本部)에 잇는 도부조합(屠夫組合)에서는 이십일오후다섯시경에시외신설리(新設里)리순경(李淳敬)군집에서조합원 사십구명중 삼십칠명이모혀 림시총회(臨時總會)를 열고 금년 구월까지에 도수장(屠獸場)이동대문밧동묘(東廟)부근으로 옴기게됨을 긔회하야 동조합도 그근처로옴길것과 매월십전식내든 회비를 소한머리에오전식 내기로개뎡할것과 소고기운반하는수레(車)를도부이외에 다른인부들이 쓰려는 일이만흐나이는 반드시도부가 쓰려야할것임으로 제지운동을할필요하다는등 여러가지를 가결하엿는데 수레조건은 교섭위원세명을 뽑아수육판매조합(獸肉販賣組合)과수레쓰는 현역자들에게교섭을 하기로하고 헤여젓다더라

遭難된漁船二隻

哀痛의哭、歡喜의淚

한척은파선 한척은무사

지난십일일함남륙대(咸南六臺)에서어선(漁船)두척이고기잡이를갓다가 급작히 부는선풍(旋風)에 행위불명이되엿든바 십구일아츰일곱시경에 동리 김영준(金永俊)의 어선이마양도(馬養島)주위를향해하던중 권긔조난된어부중한명인오득선(吳得善)의 시테가부러진돗대에얽매인것을 발견하고 즉시건지여가지고 도라왓스며 그외네명은결국참사한것이 판명되엿는바 이비보를접한 가족들은 애통하기를마지아니하야 실로비참참담한 광경은 눈으로참아볼수가 업스며조난당시 동행하든 어선한척은동군신창(新昌)항에선원도무사히도착하얏다는 소식이 이십일일에도착하야그의가족들은매우깃버하야 일방에는비극 일방에는희극을 연출하엿는데 이제건사망자의주소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咸南北靑郡新浦面六臺西里 吳得善(三八)
同 金鳳淵(三八)
同 崔士有(四〇)
同 文浩先(四〇)
同 李仁甲(三一)(영무)

關西體育會主催全朝鮮男子庭球大會

平壤에열린庭球大會

平高.太陽團優勝

決勝에惜敗한培材와普專軍

關西體育會主催와本社平壤支局後援의第一回全朝鮮中學及社會團의庭球大會는豫定대로二十日과二十一日兩日間平壤高普『코트』에서行한바初日은平高軍과第二日은京城太陽團이優勝하얏다그리하야最終日인二十一日午後五時頃에大會所定의優勝旗授與式이잇서盛況裡에마치엿다兩日間經過는아래와갓다

中學團經過

平高○一×先高

平高의元大潮李昌周組는光高의二組를익이어優退한後光成의朴完郁金勳叙組가頹勢를挽回코저奮戰하야한組를익엿스나平高宗浩金奎龍組에게敗하니三對一로平高가勝利를어뎟다

五山×一○培材

培材軍의崔仁珍崔成基組는五山의兩組를連勝하니敵이겨우一點의勝을得하얏스나培材의張永生李永培組가池聖澤朴壽組를餘地업시익이니五山軍은敗北되다

◇決勝戰績 斯界의訓練이相等한드시보이는兩軍의合戰內에觀衆은一層더緊張되얏다平高軍은觀衆이想及치못한微腕을弄하야巧히敵의機先을制한故로結局培材軍이三對零으로慘敗되니는午後六時半이엇스며優勝旗授與式은二十一日로定하고閉會되다(平壤)

社會團經過

二十一日은中學『립』의優勝旗授與와社會『립』의競技하는날임으로大會는더욱盛況이엇는데開會는午前十一時大會長의…하얏는데戰績은如下

…一×法橋

…奮鬪하야得勝의…普專軍의老練한…수업서最初一勝을…連敗하야드되어三…가大敗되엿다

慧星○一×漢銀支店

慧星軍은破竹의勢로漢支軍을壓倒할새技能戰術에成功이업시보이는漢支軍은三對零으로慘敗

開城×一○法專

兩軍은가장妙技를發揮하야開城側의奇戰과法專側의健鬪는觀者로하여금壯哉를늣기게하야四面으로拍手聲이끈치지안앗다처음부터最終까지支離한쟁흥이伯仲의格으로勝負를決치못하兩方아優退組의再度開戰으로法專軍이勝利를得하얏다

準決勝戰

京城○一×法專

不屈勝軍인京城太陽團對法專戰에드러갓다惡戰苦鬪의法專軍은京城軍을對敵하야옷까지屈치아니하야初戰에勝負를決치못하고再戰에入하야優退組가對陣苦鬪하야三對二로京城軍에게敗北되얏다

普專○一×慧星

慧星軍도勇將의麾下에는엇질수업섯다普專이陣勢를整頓하고出馬하니慧星軍은意氣가挫屈되야結局三對零으로慧星이敗하얏다

決勝戰績

京城○一×普專

兩軍의接戰은龍攘虎搏의勢로實로大會中壯觀이엇다彼此가技術元氣及膽大가相等하야壯大雄烈의感을觀衆에게주엇다拍手聲이頻頻한속에서兩軍은雌雄을決치못하고局을結히이再戰으로京城軍이得勝하얏는데其優待里朴錠遠朴星熙兩君의活戰은特書할價値가잇섯다

寶塚野球戰日程

朝鮮人과도擧行

日本寶塚運動協會野球軍一行은十九日釜山과大邱에二戰二勝을하고二十一日午後京城着特急으로入京하얏는데朝鮮新聞後援으로二十三日부터二十八日까지每日午後四時부터龍山鐵道球場에서行한다하며特別히同一行中에는朝鮮斯界의至寶이든咸龍華金貞植諸麟奎三君과孫孝俊君이잇서方今同軍의重鎭에서猛躍中임으로朝鮮에와서朝鮮人軍과競技를行하고저하야매우志望하는터이다그리하야來二十七日에特히朝鮮人과對抗競技를行한다더라

二十三日對鐵道▲二十四日對延禧▲二十六日對鐵道▲二十七日對朝鮮人▲二十八日對延禧▲入場料每人一回五十錢

烈日下에善戰

十四對九로養正軍勝

량군은최후까지선전하엿다

본사주최의중등야구『리그』전데오일은 예뎡과가티시내뎡동(貞洞)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普)『그라운드』에서 이십이일오후네시부터양정고보(養正高普)대경신(儆新)군의 경기가 더위를무릅쓰고 거행되엿는데 만흔관중의 응원아래서 양정군의선공(先攻)으로 시작되여 량군이모다 미숙한뎜이 간간잇섯스나 최후까지 쉬지안코 선전한결과 마츰내 승리는 십사대구(十四對九)로 양정군에게 도라가고마럿스며 끗까지 진정한운동정신에 분투한 경신군은 물론이오 응원단의열렬한 응원에는 『게임』중 장관이엿다

今日競技는

휘문운동장에 두강군이대전

그러고 본『리그』전데륙일인배재대휘문(培材對徽文)경기는금이십삼일오후네시부터시내원동(苑洞)에잇는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普)『그라운드』에서개최 되는데 이는 모다호평을 가진강군(强軍)임으로자못 황홍일울터이더라

『學生을毆打하는 敎員이資格者』

价川公普校長의辯明

모욕이나다름업는변명에 학부형과일반은더욱분개

평남개천 공립보통학교(平南价川公普通學校)의 월사금혹증(月謝金酷徵)복식교수 (複式敎授)태벌(笞罰)문데로 학부형의비난과불평이심하다함은 미보도한바어니와 지난 십팔일에는 그문데의선후책을협의하기위하야 오후세시부터 부형중에가장유력한 이십삼인을청하야 오후일곱시까지 장시간질문과 변명이잇섯는데 그내용을 소개하면 가등(加藤)교장은변명하되 월사금문데는 법규나 주의치안은학생으로하야 주의를잘시키기위하야 힘일업시집으로도라가부형에게도 주의를 하야주기를 바라는의미로그런것이요결코이후에는업슬일이라고선언하고다음은특별재문데인오학년(五學年)에게륙학년(六學年)교과서를교수한다는특별한복식교수에대하야 자긔가 면긔에사범학교에서 배운교수법인데 력사、리과、디리(歷史、理科、地理)는선후가업는것이라고 자당한지 변명인지모르게 호한말로 시간만허비하고 셋재문데인태형(笞刑)에대하야는일본에서 학생을따리고 큰문데가되엿다가 감독관텽인 현텽에서 따리는선생이

자격자라

고하야결국무사하엿다는 말을한후 부형들이학생의 말만듯고 불평을이르킨 것이나 그모든오해를 풀어주기를바란다는 말이 쏫나자부형 대표김윤(金鈗)씨는 학무위원 (學務委員)학교평의원(學校評議員)의자격을무시하고 불친절한 무자격의교원이라는열변을하고다음 강태영(姜泰永)씨가지육(智育)보다훈육(訓育)에힘을다하라는 말이 잇섯스며 김한영(金漢永) 김성옥(金成玉)강주혁(姜周赫)제씨의

질문에

는가등교장은 유서 … 하야달라는 괴운업는 말로산회하엿는데 학무위원고건섭(學務委員高健燮)씨는 그의 직무(職務)를그자리에서 그만둔다선언하얏스며 기타학부형들은 후일에다시 회의를열고 어데까지라도그의비행을 규탄하고자 여론이더욱비등하여간다더라(개천)

주의를

하야주기를 바라는의미로그런것이요

◇集會◇

◇夏期傳道講演會 서대문외현뎌동(西門外天然洞)석교례배당에서는이십삼일부터이십팔일까지 매일오후여덟시반부터 전도강연회를 연다는데 이십삼일 연데와연사는아래와갓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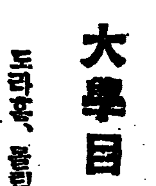
一、幸福과生活 車觀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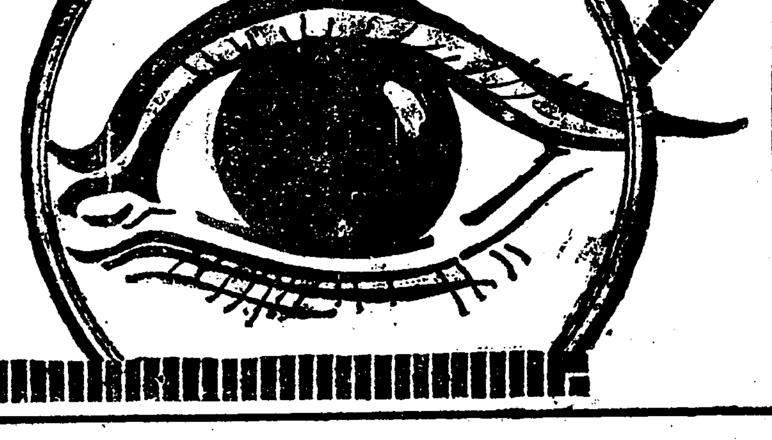
휘파람

▲평북선천공립보통학교일본인교사하성(下城)이란자는동교녀자부교실에서조선기생두명과일본기생두명을불러다 노코『먹어라』『부어라』하면서 질탕거리고 놀드라고▲이것을 목도한청년몃사람이 문책을하니『래일이라도 교원을그만두면 그만이아니냐』고반박을하엿다▲청년들은그말을듯고어이가업서 다시일본인교장송긔(松崎)를차저가서 사실을말하니까『조선인교원가운데도 화류계에빠진자가잇스니까 그것은 문데되지안는다』고하더라고▲참교육가로서는 들도업슬 인물들이다그런데 조선사람에게 그런훌륭한 교육가를 남겨두기가앗가우니하로밧비현해탄(玄海灘)저편으로도건너세여라

◇訂正 去二十一日發行本紙二面에揭載된『詐欺漢二名에게弄絡된七千生靈』이라는題下의記事中下段에『京城府 敎義洞植田相에게一金六千圓에契約成立하야實金二千五百圓을借貸』라는句節만은事實錯誤이기前記句節만은此를訂正함

大學目藥 (대학목약)





大學目藥은 도라홈、풀렴眼疾、빗침눈、星目、打撲目、흐린눈、삼눈、其他眼疾一切에 効力이第一이오

十歲以下는小兒用大學目藥이잇소

參天堂合資會社 大阪市北濱

감긔와 신열에는 커울에단것저 責任分量으로安全하게낫슴니다

커울표의 해열제 ハカリ印のヘブリン丸

大阪市北濱二丁目 參天堂合資會社

뒤가잘안이 보일째에는 參天堂의 健通丸을服用하시요

변통이부여인이 바이지안이하고 뒤가잘보여집니다

大阪市北濱 參天堂合資會社 各地藥店에잇소 價十錢以上壹圓迄